



양인철(한남대)

## 1. 들어가는 말

에스겔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를 통해 포로 공동체에게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이다. 특히, 에스겔 24장 15-27절에서 에스겔이 죽은 아내 앞에 애도하지 않는 행동은 일반 독자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이다. 이러한 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에스겔이 레위기 21장에 기술된 대제사장의 규정에 따라 죽은 아내의 시체로부터 멀리했다는 견해이다. 모셰 그린버그(Moshe Greenberg)와 마빈 스위니(Marvin Sweeney)는 대제사장 신분인 에스겔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행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에, 죽은 아내

를 위해 애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up>1</sup> 레위기 21장의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에든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명령이 있다(레 21:10-15). 바로 이 규정을 사독 계열 대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철저히 지킨 것으로 두 학자는 추정하는 것이다(겔 1:1-3).

그러나 에스겔이 대제사장에 관한 규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해서, 그가 아내의 죽음을 외면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조용히 하는 행위”(겔 24:17a)는 그의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 17절에서 야훼는 에스겔에게 죽은 아내를 위해 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에게 예외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17절 상반절은 “괴로워하라! 조용히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이 명령을 따라 에스겔은 괴로워하며, 침묵한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율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이다. 이는 한 개인이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경직된 상태에 이르게 된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행동에 대해 발터 짐머리(Walther Zimmerli)는 에스겔이 겪은 고통은 평범한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겪는 고통이며, 그 고통의 심각성으로 인해 애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sup>2</sup>

동시에 에스겔은 자신의 행동이 보여 주는 상징성을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인한 공동체의 트라우마에까지 확장시킨다. 에스겔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의 기쁨의 존재였던 예루살렘의 몰락과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겔 24:25). 이를 통해 에스겔은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의 고통으로 확장하며, 포로 공동체가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겔 24:23). 이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1 Moshe Greenberg, *Ezekiel 21-3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2A (New York: Doubleday, 1983), 510; Marvin Sweeney, *Form and Intertextuality in Prophetic and Apocalyptic Literature* (FAT 45: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39.

2 Walther Zimmerli,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Chapters 1-24* trans. Ronald E. Clement, *Hermeneia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507.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않는 행동(겔 24:15-27)은 예루살렘 몰락 이후 포로 공동체가 겪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증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학자 제프리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의 주장에 근거하여, 에스겔이 개인의 트라우마에서 공동체가 함께 겪어야만 하는 트라우마로 확장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주목하고자 한다. 알렉산더는 개인이 경험하는 트라우마가 문학작품에 영향을 준다는 캐시 카루스(Cathy Caruth)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집단의 트라우마가 반영된 문학작품의 의미에 대해 연구했다.<sup>3</sup> 특히 알렉산더는 집단의 트라우마는 어느 한 사건을 재구성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알렉산더는 어느 한 공동체가 집단의 트라우마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에 속해 있지만, 지적인 능력을 지닌 엘리트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sup>5</sup> 이 엘리트가 어느 한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도록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에스겔 24장에서 소수 엘리트 대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스스로가 표징이 되어(겔 24:24), 예루살렘의 멸망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아내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준다. 또한,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가 과거 예루살렘 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갈망하였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를 위한 애도보다는 화관을 쓰고, 신발을 신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겔 24:17, 23). 이를 통해, 에스겔은 그가 속한 포로 공동체가 그들 스스로 재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로 트라우마 이론을 기초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로, 에스겔을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기초로 그

3 Jeffrey C. Alexander, *Trauma: A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2012), 1.

4 윗글, 4.

5 윗글, 16.

의 비유와 행동을 분석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대한 번역, 구조, 배경을 분석하되, 알렉산더의 집단 트라우마 해석이론에 기초하여 에스겔의 트라우마가 포로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트라우마 이론에 근거한 에스겔 해석

### 1) 문학작품에 나타난 트라우마에 대한 이론적 해석

트라우마는 과도한 위협과 공포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의미하며,<sup>6</sup> 그 기원은 상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τραυμα)로부터 파생되었다.<sup>7</sup> 트라우마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장 마르탱 샤르코(Jean-Martin Charcot)가 1866년에서 1870년 사이에 발생한 열차 사고가 신경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면서 시작하였다.<sup>8</sup> 샤르코의 영향을 받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외적 요인이 정신에 침투하여 히스테리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캐시 카루스(Cathy Caruth)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문학 이론으로 발전시켜, 트라우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트라우마는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한 개인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측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재난 이후에 회상 장면의 형태나 악몽과 같이 플래쉬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트라우마 체험은 고통에 대한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서 일정하게 모호하게 나타난다. 그

것은 한 개인이 끔찍한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그 사건에 대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각적이면서 모호하게 경험하는 이 트라우마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뒤늦게 나타난다.<sup>10</sup>

카루스는 이러한 트라우마의 정의를 기반으로 어떠한 특정한 정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경험한 트라우마가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sup>11</sup> 그녀는 트라우마를 기록한 문서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이면에 등장하는 사건의 재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프로이트의 저서 「모세와 유일신론」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올 수 있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태양 중심의 유일신론의 신봉자였다. 프로이트는 파라오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서, 유일신 사상을 재건한 자가 모세로 보았다. 또한, 기존 신학이 주장하는 견해와 달리 프로이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죽인 이후, 모세의 신을 자신들이 추종했던 야훼라는 활화산에서 임재하는 신의 이미지와 동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프로이트에 의하면 살인에 의한 트라우마가 새로운 유일신 사상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인 것이다.<sup>12</sup> 카루스는 이 점을 주목하고, 트라우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 이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개인의 문학작품에서 끊임없이 재등장한다고 주장했다.<sup>13</sup>

카루스의 이론을 기초로 공동체가 겪는 트라우마가 문학 작품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연구한 학자는 제프리 알렉산더이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한 개인이 트라우마를 겪으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억압이나 부정이라는 기재를 사용하고 심리적인 위안을 찾는다고 보았다. 알렉산더는 개인의 트라우마와

6 Judith Herman,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역(서울: 열린책들, 2012), 17.

7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3.

8 Didier Fassin and Richard Rechtman, 「트라우마의 제국」, 최보문 역(서울: 바다출판사, 2016), 61.

9 윌글, 63.

10 Caruth, 윌글, 91-92.

11 윌글, 11.

12 윌글, 13-14.

13 윌글, 72.

달리 집단에게 트라우마는 이야기거리와 캐릭터를 양산해 내며, 상징적인 구조나 틀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집단이 공유하는 트라우마는 공동체가 함께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개인의 트라우마가 집단의 트라우마로 확장하기 위해 연설문, 제사 의식, 행렬, 모임, 연극, 영화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15</sup> 알렉산더는 집단의 트라우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집단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고통이나 실제 사건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단의 트라우마는 그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상상하며 얻게 되는 상징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고 기술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을 것이며, 어떤 사건이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진실을 반영한 의견과 상상을 반영한 의견 사이를 대조하는 연구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보여 주는 진실은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대중을 움직이는 상징적인 힘과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sup>16</sup>

알렉산더는 개인의 트라우마가 집단의 트라우마로 확장되면서, '나'의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함께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책임 의식을 지니는 과정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sup>17</sup> 알렉산더는 어느 한 공동체가 끔찍한 재난을 체험하고 '우리'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해석할 때 정신분석학적 생각 (Psychoanalytic Thinking)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집단의 트라우마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술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상상하고 기억하는 사람의 해석으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이 사

14 Alexander, 윗글, 3.  
15 윗글, 4.  
16 Alexander, 윗글, 4.  
17 Alexander, 윗글, 6.

건을 상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주목했다.<sup>18</sup> 알렉산더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사건을 해석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소수 엘리트 집단을 사건 해석을 전달하는 집단(Carrier Groups)으로 명시하였다.<sup>19</sup> 알렉산더는 이 엘리트 집단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구성원일 수도 있지만, 대중이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도자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집단의 트라우마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는 다음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1</sup> 첫째, 고통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실제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고, 어떠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한다. 둘째, 누가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고통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이다. 셋째, 트라우마를 경험한 희생자와 청중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듣는 청중이 트라우마를 입은 개인과 유사한 트라우마를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트라우마를 입힌 존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필자는 이 알렉산더의 네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에스겔 24장 15-27절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에스겔과 트라우마

사독 계열 대제사장 신분인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한 트라우마와 포로기에서 경험했던 아픔을 글로 기술하고 있다. 대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은 주전 592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고 예언을 선포하였다(겔 1:1-3). 스위니는 에스겔 1장 1절의 연대기와 관련된 문구인 “제 삼

18 윗글, 14.  
19 윗글, 16.  
20 윗글, 16.  
21 윗글, 17-19.

십 년”을 에스겔의 실제 나이로 이해했으며, 사독 계열 제사장인 에스겔이 주전 592년에 그의 30살의 나이에 그의 제사장 직분을 시작했고, 에스겔 40장에서 그가 제사장 직분을 은퇴하던 나이인 50세에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다(민 4: 레 8).<sup>22</sup> 에스겔은 30살의 나이에 제사장 직분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행해야 하지만, 그가 직면한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에스겔이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할 공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 엘리트 신분이었던 에스겔이 포로 신분이 되었다는 현실이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한, 에스겔은 전쟁으로 인해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바벨론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을 탈출한 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는 소식을 그에게 전달하였다(겔 33:21-22).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자신의 동포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주전 587년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도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몰락을 직접 체험한 에스겔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예언을 통해 선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언을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고,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각각의 사건들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특히, 에스겔은 전쟁의 잔인함과 그로 인해 얻게 된 트라우마를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를 통해 기술하고 있다. 에스겔은 스스로 자신의 본래 성향을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라고 기록하였다

22 Marvin A. Sweeney, *Reading Ezeki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13), 1-19. 그의 제자인 메이필드 또한 스위니의 연대기적 설명에 동의하며, 에스겔에 나타난 연대기가 에스겔의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Tyler D.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01-4. 오델에 의하면, ‘삼십년’이라는 숫자를 에스겔의 나이로 주장한 첫 번째 학자는 오리겐이다. Margaret S. Odell, “You Are What You Eat: Ezekiel and the Scrol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 (1998), 229-48. 에스겔서에 대한 최근 연구는 임효명, “에스겔 16장의 폭력적 아예 상과 상징의 재고,” 『구약논단』 25.2 (2019), 91-117와 김래용,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거룩,” 『구약논단』 24.3 (2018), 232-265를 참고하라.

(겔 33:32).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와 달리 에스겔은 그의 예언에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극을 적나라하게 선포한다. 에스겔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떠나 이동하는 수레바퀴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언한다. 또한, 에스겔은 자신의 입이 닫히고 예언을 할 수 없는 상황(겔 3:26)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은 필연적이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중재할 수 없는 상황을 선포한다. 다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가 되어서야 에스겔은 입을 열어 예언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겔 24:26-27).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에스겔은 에스겔 4장에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고 파괴하는 예언을 보여 준다. 또한, 그는 부정한 빵을 쇠뿔 위에 불을 피워만 들어 먹는 장면을 비유로 보여준다. 에스겔 5장에서는 에스겔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셋으로 나누어 불에 태우는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 심판을 예고한다. 에스겔 9장에서 에스겔은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로 인해, 여섯 명의 심판자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에스겔 16장과 23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에게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한다. 그리하여 에스겔 24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이 불타는 녹슨 가마와 같은 상태가 됨을 기록한다. 특히, 가마 속 양고기의 뼈와 피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에스겔이 전쟁에 의한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았고, 전쟁의 잔혹성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에스겔의 트라우마를 설명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의 연구를 기반으로 그의 심리적인 성향을 분석하였다. 독일 학자 아우구스트 클로스터만(August Klostermann)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에드윈 브룸(Edwin C. Broome Jr.)은 에스겔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한 공포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sup>23</sup> 브룸은 에스겔이 어떠한 사건을 기억해 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는 행위가 긴장성 분열증(Catatonia)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sup>24</sup> 예를 들어,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예언하는 장면과 인분 위에 불을 피워 빵을 만들라는 명령 등은 그가 지닌 긴장성 분열증으로 인한 행동인 것이다.<sup>25</sup> 그러나 그의 분석은 지나치게 에스겔의 정신분열과 관련된 심리적 요소만 강조하였고, 그가 당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사회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데이비드 할퍼린(David J. Halperin)은 에스겔의 심리학적 상태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가 그의 성적 도착증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에스겔은 16장과 23장에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묘사하며, 예루살렘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사람들과 과도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기술한다. 할퍼린은 에스겔의 여성에 대한 과도한 성적 표현에서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27</sup>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며 아버지와 대립하는 심리적 성향이다. 할퍼린은 이러한 심리적 성향을 에스겔의 여성에 대한 과도한 성적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는 포로로 붙잡혔던 에스겔이 자신의 어렸을 때 겪었던 성적 수치심을 회상시키게 만들었다고 보았다.<sup>28</sup> 그리하여 할퍼린은 에스겔이 성인이 되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어릴 때 겪었던 성적 수치심이 연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의 어렸을 때의 심리적 성향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그의 주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

친 견해를 보여준다. 할퍼린은 30세의 에스겔이 강대국에 의해 동족이 말살되는 경험을 하는 전쟁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다니엘 스미스 크리스토퍼(Daniel Smith-Christopher)는 에스겔 연구의 최우선적인 연구 과제로서, PTSD 연구와 피난민 신학(Refuge Theology)과 포로 난민(Deportation)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9</sup> 스미스 크리스토퍼는 PTSD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병사들과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에스겔의 행동 또한 PTSD 증후군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그는 에스겔이 사용하는 언어는 고통에 기반한 언어이며, 바벨론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면서 남기고 간 상처로부터 생긴 결과로 보았다.<sup>31</sup> 스미스 크리스토퍼는 에스겔의 행동에 나타난 PTSD에 대해 다음과 기술한다.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했는가? 무엇이 에스겔이 정복에 의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을까? 두려움에 떨며 흩어져 난민이 된 자들, 사로 잡혀 죽게 될까 공포에 떠는 이들,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재현되는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기억으로 인해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때로는 이 기억은 그들에게 침묵을 하게 만들고, 자살을 시도하게 만든다. 난민이 겪는 정신 편집증을 분석하면, 그들이 묘사하는 칼은 말 그대로 실제 칼을 의미한다. 비록 에스겔이 칼을 표현할 때, 그 칼이 쓰이는 실제 용도의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과 표현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트라우마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에스겔을 읽을 때, 우리는

23 Edwin C. Broome Jr., "Ezekiel's Abnormal Personalit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65 (1946), 277-92.

24 윗글, 279.

25 Broome, 윗글, 281.

26 David J. Halperin, *Seeking Ezekiel: Text and Psycholog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147.

27 윗글, 147.

28 윗글, 148.

29 Daniel L. Smith-Christopher, "Ezekiel in Abu Ghraib: rereading Ezekiel 16:37-39 in the context of imperial conquest" in *Ezekiel's Hierarchical world: Wrestling with a Tiered Reality*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141-157.

30 윗글, 148. 스미스 크리스토퍼는 그의 저서 "A Biblical Theology of Exile"에서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겪는 PTSD와 고통에 대해 에스겔, 예레미야 예언에서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특히, 그는 제3장에서 에스겔의 고통을 PTSD와 연결해서 그의 고통에 관해 상세히 분석했다. Daniel L. Smith-Christopher,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31 Smith-Christopher, 윗글, 149.

그의 정치, 사회적 상황의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가 겪었던 고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고대 제국이 약소국을 포위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수법으로 약소국에게 주는 상처와 파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바로 그 주요 원인이다.<sup>32</sup>

물론, 스미스 크리스토퍼가 에스겔을 분석하면서 적용한 사회 방법론이 최근의 현대사회와 연관된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라고 비난할 수 있다. PTSD는 앞서 서술했듯이,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논의한 정신분석의 용어이고, 고대 근동 사회의 인물인 에스겔의 예언을 분석할 때 적용한다면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 중 에스겔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예언을 통해 개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의 언어에서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포로민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스미스 크리스토퍼의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브래드 켈리(Brad Kelle)는 에스겔이 과거에 익숙했던 제사장법에 따른 관점이 있었는데, 이 관점이 전쟁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새롭게 발전되었다고 보았다.<sup>33</sup> 에스겔의 관점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환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파괴되었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더럽혀진 세상은 정화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sup>34</sup> 전쟁의 상처가 있는 에스겔은 그가 경험한 세상을 해석할 때, 이상숭배,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다고 기술한다. 에스겔은 자신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스겔의 성향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비슷하다. 켈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한 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고통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주장했다.<sup>35</sup> 그리하여 그는 에스겔이 자신

의 고통을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시켜, 새롭게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세상의 정화에까지 강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sup>36</sup>

최근에 데이비드 가버(David G. Garber Jr.)는 에스겔 1-24장은 에스겔의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형태로 기술되었고, 그가 보여 주는 상징과 행위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히면서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sup>37</sup> 그는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문학작품에서 언어유희, 비유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주목하고, 에스겔 또한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sup>38</sup> 예를 들어, 에스겔 16장과 23장에서 예루살렘이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되며, 강대국에 의해 더럽혀지는 장면은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동일시하게 만들어 낸다. 가버는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이 비유는 강대국에 의해 한때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던 남성 청중이 여성으로 비유되어, 강대국에 의해 거세된 존재가 되는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주장했다.<sup>39</sup>

### 3.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에스겔 1-24장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본문이다. 반면에, 에스겔 25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담긴 본문(겔 24:15-27)의 앞부분(겔 24:1-24)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불타는 녹슨 가마와 같다고 비유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을 가마 속 삶은 양고기로 묘사한다. 에스겔 24장 15-27절에서 예

32 Smith-Christopher,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88-89.

33 Brad E. Kelle, *Dealing with the Trauma of Defeat: The Rhetoric of the Devastation and Rejuvenation of Nature in Ezeki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 (2009), 469-90.

34 윗글, 482.

35 윗글, 483.

36 윗글, 480.

37 David Garber, "I Went in Bitterness": Theological Implications of a Trauma Theory in the Reading of Ezekiel," *R&E* 111 (2014): 346-57.

38 윗글, 349.

39 Garber, 윗글, 355.

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되, 아내의 죽음으로 설명한다. 본문에서 그는 죽은 아내를 위한 애도를 하지 않는 행위를 예언하며, 포로 공동체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애도하지 않게 되리라고 예언한다. 이 본문에 대한 번역, 구조, 배경 및 해석의 순서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에스겔 24장 15-27절 번역<sup>40</sup>

15 그리고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말씀하시기를  
16 인자야! 보아라! 내가 너로부터 네 눈에 소중한 존재를 단번에 쳐죽여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애곡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애통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너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sup>41</sup>  
17 피로워하라. 조용히 하라.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를 너는 하지 말아라. 두건을 네 위에 묶고 너의 신발을 네 발에 신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음식을<sup>42</sup> 너는 먹지 말아라.  
18 그리고 나는 백성에게 아침에 말했다<sup>43</sup>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였다.  
19 그리고 백성은 나에게 말하였다.  
네가 행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우리에게<sup>44</sup>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20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40 본문에 대한 번역은 최대한 마소라 본문에 근거하여 직역을 하였다. 일부 수정된 문장은 BHS 비평 장치의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  
41 70인역에서는 “너는 너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다.  
42 BHS 비평 장치는 호세아 9장 4절을 근거로, “사람들의 음식”을 ‘애도하는 자들의 음식’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불가타역과 탈공역을 참조하라.  
43 18절에서 “그리고 나는 백성에게 아침에 말했다”는 에스겔 개인이 백성에게 고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맥 상으로 볼 때 야훼가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문구가 아니라 BHS 비평 장치는 “그리고 너는 말할 것이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44 BHS 비평 장치는 19절의 “우리에게”가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된 중복 오사로 보고,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말씀하시기를  
21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그러므로 보아라!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희의 힘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에 기쁨이며<sup>45</sup> 너에게 소중한 존재인 나의 성소를 더럽힐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남겨 온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칼로 엎드리지게 되리라.  
22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는 입술을 가리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의 음식을 너희는 먹어서는 안된다.  
23 그리고 너희의 머리 위에 너희의 두건을<sup>46</sup> 입고 너희의 신발을 너희 발에 신어라. 너희는 애곡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애통해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기력이 쇠할 것이며 서로 탄식할 것이다.<sup>47</sup>  
24 그리고 에스겔은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가 행했던 모든 것처럼 너희도 행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는 내가 주 야훼임을 알 것이다.  
25 그리고 너 인자야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눈이 갈망하고 그들 마음으로 소망하는 존재,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가져가는 날에  
26 그 날에 도망자가 너에게 찾아와서 귀에 소식을 전하여 주지 않겠느냐?<sup>48</sup>  
27 그 날에 너의 입이 그 탈출한 자에게 열릴 것이며, 너는 말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45 BHS 비평 장치는 21절의 “너희의 눈에 기쁨이며”를 25절과 병행되는 문구로 보고, ‘눈이 갈망하는 것’으로 읽기를 제안한다.  
46 마소라 본문에서 두건이 단수로 쓰여 있어서, BHS 비평 장치는 복수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47 마소라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ʔʔʔ(나함/탄식하다)로 기록되어 있지만, 70인역에서는 “평안할 것이다”로 기록되어 있다.  
48 마소라 본문에서는 “귀에 들리는 소식”으로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BHS 비평 장치는 ʔʔʔ(사마/듣다)의 명사형이 아닌 히필형으로 바꾸어 읽음으로써 너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하여 읽기를 제안한다.

## 2) 에스겔 24장 15-27절 구조

앞서 기술한 대로 에스겔 24장 15-27절은 예루살렘 멸망이 담긴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에스겔 25장부터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담기면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마무리한다. 다만 에스겔 33장에 이르러 에스겔은 스스로가 파수꾼이 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21절에 도망자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에스겔 24장 15-27절에 대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b>I.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가 행할 행동</b>	<b>15-19절</b>
A. 에스겔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	15절
B. 인자에게 임한 야훼의 예언	16-17절
1.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언	16a
2. 에스겔이 행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16b-17
a. 애곡하지 말아라	16ba
b. 애통해하지 말아라	16bβ
c. 너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16bx
d. 괴로워하라	17aα
e. 조용히 하라	17aβ
f.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를 하지 말아라	17ax
g. 두건을 네 위에 묶어라	17aδ
h. 신발을 신어라	17ae
i. 수염을 가리지 말아라	17ba
j.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17bβ
C.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의 실현	18
1.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18a
2. 명령대로 실천한 에스겔	18b
D. 청중들의 질문과 에스겔의 응답	19
1. 청중들의 에스겔의 행위에 대한 질문	19a
2. 에스겔의 청중들에 질문에 대한 응답	19b-20a
II.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해석	20b-24
A. 에스겔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	20b
B.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	21a
C. 포로민들이 남겨온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	21b
D.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22-23
1. 에스겔의 명령	22aα
2.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	22aβ-23

a. 입술을 가리우지 말라	22aβ
b.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22b
c. 두건을 머리 위에 묶어라	23aα
d. 신발을 신어라	23aβ
e. 애곡하지 말아라	23ax
d. 애통하지 말아라	23aδ
e. 죄로 인하여 기력이 쇠할 것이다	23ba
f. 서로 탄식할 것이다	23bβ
E. 에스겔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이 되리라는 예언	24
a. 표징의 역할을 갖게 될 에스겔	24aα
b. 에스겔의 행동처럼 행하라는 명령	24aβ
c. 야훼에 대한 인지	24b
III. 그 날에 임할 예언	25-28
A.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게 될 것들에 대한 예언	25
a.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날	25a
b.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자녀를 잃게 되는 날	25b
B. 그 날에 도망자가 알려줄 소식	26
C. 그 날에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에 대한 예언	27a
D. 표징의 역할을 갖게 될 에스겔	27ba
E. 야훼에 대한 인지	27bβ

에스겔 24장 15-27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가 행할 행동(겔 24:15-20),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해석(겔 24:20-24), 그 날에 임할 예언(겔 24:25-28)으로 구분이 된다. 이 구조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에스겔이 그의 아내가 죽은 이후 행할 행동(겔 24:16b-17절)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녀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행동(22-23절)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두 번에 걸쳐 죽은 자를 애도를 금지하는 문구 사이에 19절이 존재한다.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한다. 19절 이후 주요 관심사가 에스겔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에서 포로 공동체 공통의 관심사로 확장된다. 에스겔은 그의 아내에게 임할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예언에 대한 선포가 야훼가 직접 주신 예언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 15절과 20절 하반절에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문구를 각각 말미에 배치시킨다.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날에 대한 선포는 마지막 문단(25-28절)에 위

치하고 있다. 이 문단에서 에스겔은 그날에 임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게 될 것들과 그날에 도망자가 찾아와 소식을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 27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입이 열고 예언하리라는 선포를 하고, 스스로가 표징이 될 것이라고 기술한다. 에스겔 스스로가 가질 상징성이 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에스겔은 24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에서 야훼에 대한 인지, 즉 “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라는 문구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 3) 에스겔 24장 15-27절 배경 및 해석

에스겔 24장 15-27절의 배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7년의 상황과 근접한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1절에 야훼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시기는 제구 년 열째 달 십 일로 기록되어 있다. 침멸리는 이 시기를 주전 587년에 가까운 시기이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시작한 시기로 추정하였다.<sup>49</sup> 그린버그와 다니엘 블락(Daniel I. Block)은 1절이 왕하 25장 1절과 문체상으로 동일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주전 588년 1월 15일로 추정하였다.<sup>50</sup> 이와 달리 로널드 할(Ronald M. Hal)은 편집비평적 관점에서 에스겔 24장 15-27절은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과 근접한 시기에 기록되었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겔 33장 21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sup>51</sup> 할의 주장에 따르면, 에스겔 24장 15-27절의 예언이 에스겔 33장 21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탈출한 자가 소식을 전하면서 실현되기 때문이다.<sup>52</sup> 에스겔 24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본문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경험한 자의 증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스겔이 에스겔 24장 1-14절에서 예루살렘

49 Zimmerli, *룻글*, 497-498.

50 Greenberg, *룻글*, 496;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Eerdmans, 1998), 772

51 Ronald M. Hal,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89), 175.

52 *룻글*, 175.

을 불타는 녹슨 가마로 묘사하고, 그 안에 삶은 고기와 뼈로 묘사한 표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 있는 거주민들의 운명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문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극대화하고 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 제사장인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주전 597년에 끌려가면서, 그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포로 공동체에게 설명해야만 했다. 그의 트라우마는 포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험한 트라우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서 알렉산더가 집단의 트라우마가 담긴 이야기가 형성되기 위해 소수의 엘리트가 만들어내는 네 가지 항목이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따라 본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통의 본질에 대한 질문: 어떠한 사건이 고통에 이르게 만들었는가?

알렉산더는 개인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자가 집단의 트라우마가 갖는 의미를 공동체에게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통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3</sup> 사독 계열 소수 엘리트 계층에 속한 에스겔은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가 예루살렘 멸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내의 죽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비슷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겔 24:21).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언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찾아와 소식을 전해 준다는 내용으로 본문을 마무리한다(겔 24:27).

에스겔의 관점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고통은 주전 587년에 야훼가 임재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멸망하리라는 소식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의 상징이며,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이다(겔 24:21). 그런

53 Alexander, *룻글*, 17.

데 에스겔은 야훼가 직접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남겨진 자녀들이 칼로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그리하여 에스겔은 공동체가 느끼는 트라우마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아내가 하룻밤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트라우마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에스겔 24장 16절에서 “단번에 처죽여”로 번역한 히브리어 **תָּבַח**(막계과/전염병 혹은 살상)는 구약성서에서 총 26번 등장한다. 이 단어는 ‘전염병’으로 번역이 되었을 때,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때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다(민 17:14).<sup>54</sup>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측불허이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도입하고 있다.

에스겔 16장 17절과 22절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에스겔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들이다. 17절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행위”는 히브리어 **אָבַח**(사파드/슬퍼하다)와 히브리어 **בָּכָה**(바카/애통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성서에서 죽은 자를 위한 애도와 관련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등장한다(창 23:2). 이 표현은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할 때에도 사용되었다(창 50:10 참조). 그러나 에스겔 2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표현 중 머리에 있는 두건을 벗고, 신발을 벗고, 입을 가리우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에스겔 외 다른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평상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갖추서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죽은 아브넬을 위해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애통하는 표현이 등장한다(삼하 3:31). 에스겔 16장 17절과 22절에서 애도하는 자가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호세아 9장 4절에서 애도하는 자들의 음식이라는 표

54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크나큰 살상이 일어났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삼상 4:17).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 아끼던 두 아들인 훌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다.

현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캐서린 다르(Katheryn Darr)는 에스겔 24장 17절과 22절의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표현을 ‘애도하는 자들의 음식’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sup>55</sup> 애도하는 자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의 기원에 대해 침묵하는 우가릿 문서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구가 있고, 에스겔에 등장하는 제사 의식은 가나안 종교에 영향을 받은 문구라고 주장한다.<sup>56</sup> 어쩌면 이러한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는 행위를 중시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멸망은 야훼께서 결정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수많은 사망자를 위해 어떠한 위로도 줄 여유조차 없을 만큼 큰 재앙임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 애도는 죽은 자와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위로를 준다. 그러나 에스겔 24장 16-17절에서 야훼는 에스겔로 하여금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표현을 금지할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야훼께서 그 어떠한 동정심도 주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를 금지하는 이 문구를 해석하기 위해, 예레미야 16장 7절과 연관 지어 설명해 왔다.<sup>57</sup>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빵을 떼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위로의 잔을 마시우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예레미야 16장 7절).<sup>58</sup>

55 Katheryn P. Darr, *The Book of Ezekiel: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 NIB 6* (Nashville: Abingdon, 2001), 1342.

56 Zimmerli, 윗글, 506.

57 윗글, 506; Greenberg, 윗글, 515; Diana Lipton, “Early Mourning?: Petitionary versus Posthumous Ritual in Ezekiel XXIV.” *Vetus Testamentum* 56 (2006), 190.

58 그린버그는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 않는 문장이 이집트 왕국의 몰락에 기술하는 이집트 문서 네페르티 예언(Prophecy of Neferti)의 문구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죽음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애도하는 사람이 없다. 죽음으로 인해 저녁에 금식을 하며 보내는 자도 없다. 스스로의 마음이 혼잡하다. 오늘 어느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다. 마음이 애도하는 행위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다.” Greenberg, 윗글, 515.

이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또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 대학살이 일어난 상황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는 자들조차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이아나 립튼(Diana Lipton)은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지 않는 에스겔의 행동은 야훼의 심판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sup>59</sup> 그녀는 야훼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이후에야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에스겔이 3장에서 입이 닫히고, 33장에 이르러 입이 열리는 상황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멸망하기 전까지는 에스겔이 입을 열어 중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즉, 에스겔이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 못하는 행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멸망은 야훼가 결정을 내린 필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2) 희생자의 정체성: 누가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고통에 영향을 받는가?

알렉산더는 집단 트라우마를 설명하기 위해, 희생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60</sup> 에스겔이 말하는 희생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희생자는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이다. 이들에게 에스겔은 공동체가 느낄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죽은 자를 위한 애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포로 공동체가 느끼는 고통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제대로 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외적으로 포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애도하는 행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제지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립튼은 포로 공동체가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지 못하는 행위는 그들의 신분상의 변화를 뜻하며, 애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sup>61</sup>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입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히 신음하는 소리로 그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에스겔 24장 17절에서 야훼는 에스겔이 “조용히 괴로워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17절의 히브리어 פָּנָח(아나크/괴로워하다)는 구약성서에서 총 4번 사용되었고, 에스겔에서만 3번 사용되었다(렘 51:52; 겔 9:4; 24:17; 26:15). 히브리어 פָּנָח(아나크/괴로워하다)는 에스겔 26장 15절에서 두로 도시의 멸망을 두고, 두로 거민들이 괴로워하는 행위 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기록되었다. 그린버그는 에스겔이 신음하면서도 침묵을 유지하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어법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주장한다.<sup>62</sup> 즉,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가 침묵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말로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행위는 에스겔과 그의 공동체가 느끼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낸시 보웬(Nancy Bowen)은 에스겔이 겪은 트라우마를 주제로 에스겔서에 대한 주석을 시도하면서, 에스겔이 침묵 속에 신음하는 것은 PTSD의 증상인 ‘긴축(Constriction)’과 ‘무감각(Numbing)’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sup>63</sup> 디디에 파생(Didier Fassin)과 리샤르 레스만(Richard Rechtman)은 PTSD를 경험한 엘리트는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성이 감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온몸이 굳어버릴 정도의 공포를 체험한다고 보았다.<sup>64</sup> 또한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자들이 잔인한 사건에 대한 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말할 수 없는(unspeakable)’ 행동, 즉 침묵의 행동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sup>65</sup> 에스겔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게 될 포로 공동체

59 Lipton, *Early Mourning*, 199. 립튼의 주장은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의 주장을 기초로 한 주장이다. 윌슨은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의 입이 닫히는 상황에 대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중보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하였다. Robert R. Wilson, "Interpretation of Ezekiel's Dumbness," *Vetus Testamentum* 22 (1972), 91-104.

60 Alexander, *윌슨*, 18.

61 Lipton, *윌슨*, 189.

62 Greenberg, *윌슨*, 508.

63 Nancy R. Bowen, *Ezekiel*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150.

64 Fassin and Rechtman, *윌슨*, 86.

65 Herman, *윌슨*, 16-17, 68.

는 그가 겪은 트라우마를 함께 공유했을 것이다. 그 고통은 에스겔이 자신의 아내를 상실해도 애도하지 못했던 것처럼, 포로 공동체는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애도하지 못하는 상황과 동일한 고통이었다(겔 24:21-23).

### (3) 트라우마 희생자와 청중과의 관계: 듣는 청중이 트라우마를 입은 개인과 동일한 트라우마를 체험할 수 있는가?

에스겔이 속한 포로 공동체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공동체이다. 비록 에스겔과 동일한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로로 속한 공동체 대부분은 지식인이거나 기술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주전 597년에 진격하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구성원의 직책은 여호야긴 왕을 포함하여, 귀족 계층, 방백, 용사, 공장과 대장장이, 싸움에 능한 자들에 해당하였다(왕하 24:19-17).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직책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였다(왕하 25:12). 따라서 사독 계열 제사장이며 엘리트 신분인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공동체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와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함께 공유했을 것이다.

또한, 에스겔은 스스로가 표징이 되어, 포로 공동체에게 그들이 당한 트라우마의 의미에 관해 설명해준다(겔 24:24). 에스겔 24장 19절에서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에게 그의 행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에스겔은 21절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아끼던 예루살렘 성소가 파괴되고, 그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이 칼로 엮드러지게 될 상황에 대해 예언한다. 파생과 레스만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이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sup>66</sup> 룩 포저(Ruth Poser) 역시 희생자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에게 트라우마를

66 Fassin and Rechtman, *뜻글*, 160.

경험한 상황을 회상하게 하여,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sup>67</sup> 트라우마를 그대로 안고 있던 에스겔은 스스로가 표징이 되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설명한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포로 공동체가 그들이 겪은 전쟁의 트라우마는 잊어서는 안 되고,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4) 고통에 대한 책임: 트라우마를 입힌 존재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에스겔은 고통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한다. 에스겔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범하는 행동이다. 에스겔은 에스겔 24장 23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기력이 쇠할 것이며, 서로 탄식에 이를 것이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히브리어 *יָיִב*(아온/죄악)은 구약 성서에서 총 233번 등장하고, 에스겔에서 총 44번 사용되었다. 특히, 에스겔은 이 단어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 1-24장에서 30번, 그 외 본문에서 에스겔 25-48장에서 14번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로 인한 죄악을 강조하고 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는 죄악으로 인해 생긴 결과로 보는 것이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 후 그 책임을 야훼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야훼를 떠나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원인을 예루살렘을 떠난 야훼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도 있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은 어느 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그 도시의 멸망은

67 Ruth Poser, "No Words: The Book of Ezekiel as Trauma Literature and a Response to Exile," in *The Bible Through the Lens of Trauma* (Atlanta, GA, 2016), 37.

신의 부재로부터 인한 원인으로 이해되었다.<sup>68</sup> 따라서 그 도시를 멸망에 이르게 한 신은 강대국의 신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만약 고대 근동의 신학적 관점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한다면, 포로 공동체에게 있어서 야훼의 존재는 열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마르둑은 더 위대한 존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야훼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멸망에 이르게 만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신정론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야훼를 참 신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24장 24절과 27절에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 사용하면서 야훼의 존재를 포로 공동체에게 선포한다.

동시에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 포로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 의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가져야 할 정체성을 강조한다. 야훼는 에스겔 24장 23절에서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 않는 행동 중 머리 위에 두건을 쓰라는 명령을 한다. 두건을 쓰는 행위와 관련된 문장은 이사야 61장 3절이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시온에서 애도하는 자들을 위해 재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라는 표현을 한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슬픔으로 인해 재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화관을 머리 위에 씌우므로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가렛 오델(Margaret Odell)은 이 점을 주목하여,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관을 씌우므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의 공동

체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69</sup> 데일 론더빌(Dale Launderville) 또한 에스겔이 공적인 애도의 표현을 삼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보았다.<sup>70</sup>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와 화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해 슬픔에 빠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허먼은 트라우마를 입은 자들이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주장하였다.<sup>71</sup> 허먼에 따르면 회복의 세 단계는 첫째 안전의 확립이며, 둘째는 기억의 통합, 셋째는 일상과 다시 연결되어 복구하는 과정이다.<sup>72</sup> 특히, 그녀는 세 번째 단계에서 ‘힘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다시 연결시키는 과정’을 강조했다.<sup>73</sup>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한 예라 볼 수 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못하는 고통이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 멸망 앞에 애도하지 못하는 고통과 같다는 비유를 한다. 그러나 에스겔의 공동체는 과거의 트라우마에만 머물지 않았다. 에스겔은 자신이 속한 포로 공동체가 그들이 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희망을 선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했다.

#### 4.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알렉산더의 집단 트라우마 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에스겔 24장

68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의 부재에 대한 신학적 관점과 관련하여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Jeffrey J. Niehaus, *Ancient Near Eastern Themes in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08), 116-137; F. W. Dobbs-Allsopp, *Weep, 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City-Lament Genre in the Hebrew Bible*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45-51; John F.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Divine Presence and Absence in the Book of Ezekiel* (Winona Lake: Eisenbrauns, 2000), 101-149; Daniel I. Block, “Divine Abandonment: Ezekiel’s Adaptation of An Ancient Near Eastern Motif,” in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 Margaret S. Odell and John T. Strong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15-42.

69 Margaret S. Odell, “Genre and Persona in Ezekiel 24:15-24,” in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195-219; Odell, *Ezekiel* (Macon: Smyth & Helwys, 2005), 319.

70 Dale F. Launderville, *Spirit and Reason: The Embodied Character of Ezekiel’s Symbolic Thinking*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292.

71 Herman, *윗글*, 260.

72 Herman, *윗글*, 261.

73 Herman, *윗글*, 327.

15-27절을 분석하였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갖게 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책임과 포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 에스겔이 죽은 아내를 위해 애도하지 않는 것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괴로워하는 아픔이지만, 야훼께서 주시는 새로운 화관을 쓰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립하는 것이 그가 야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 결국, 에스겔은 겔 40-48장에서 야훼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다. 그 성전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동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겔 47장).

에스겔과 그의 공동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PTSD를 경험한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게 야훼의 보호하심을 선포했고,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가 서로 힘을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했다.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 가득한 마른 뼈들에 생기가 임할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환상을 이야기한다(겔 37장). 이 환상에서 둘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세워 주시는 왕과 함께 회복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에스겔의 메시지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여러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수많은 공동체가 트라우마로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며, 그들이 받은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예로 들면, 그들의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재현되고, 온전한 주체로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까지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이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과정을 통해 치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신음하는 포

로 공동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함께 치유했던 과정과 유사하다. 각종 재난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트라우마의 의미를 서로 책임 의식을 갖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의 메시지처럼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에스겔과 그의 포로 공동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리라 생각한다.

## 5. 참고문헌

- 김래용,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기록,” 『구약논단』 24.3 (2018), 232-265.
- 임효명, “에스겔 16장의 폭력적 야훼 상과 상징의 재고,” 『구약논단』 25.2 (2019), 91-117.
- Alexander, Jeffrey C. *Trauma: A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2012).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97).
- Boase, Elizabeth, and Christopher G. Frechette, eds. *Bible through the Lens of Trauma*.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7).
- Bowen, Nancy R. *Ezekiel*.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 Broome Jr., Edwin C. “Ezekiel’s Abnormal Personalit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65 (1946), 277-92.
-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Darr, Katheryn P. “The Book of Ezekiel.”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A Commentary in Twelve Volumes*, 6:1073-1607. The New Interpreter’s Bible. (Nashville, TN: Abingdon, 2001).

- Fassin, Didier and Rechtman, Richard/ 최보문 역. 『트라우마의 제국』 (서울: 바다출판사, 2016).
- Garber, David G Jr. "I Went in Bitterness': Theological Implications of a Trauma Theory in the Reading of Ezekiel." *Review & Expositor* 111 (2014), 346-57.
- Greenberg, Moshe.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2. (New York: Doubleday, 1983).
- Halperin, David J. *Seeking Ezekiel: Text and Psycholog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Hals, Ronald M.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89).
- Herman Judith/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열린책들, 2012).
- Kelle, Brad E. "Dealing with the Trauma of Defeat: The Rhetoric of the Devastation and Rejuvenation of Nature in Ezeki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 (2009), 469-90.
- Launderville, Dale F. *Spirit and Reason: The Embodied Character of Ezekiel's Symbolic Thinking*.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 Lipton, Diana. "Early Mourning?: Petitionary versus Posthumous Ritual in Ezekiel XXIV." *Vetus Testamentum* 56 (2006), 185-202.
- Odell, Margaret S. *Ezekiel*. (Macon: Smyth & Helwys, 2005).
- \_\_\_\_\_. "Genre and Persona in Ezekiel 24:15-24." In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ited by Margaret S. Odell and John T. Strong, 195-219.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 Poser, Ruth. "No Words: The Book of Ezekiel as Trauma Literature and a Response to Exile." In *The Bible Through the Lens of Trauma*, 27-48. (Atlanta, GA, 2016).
- Smith-Christopher, Daniel L.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Smith-Christopher, Daniel L. "Ezekiel in Abu Ghraib: Rereading Ezekiel 16:37-39 in the Context of Imperial Conquest." In *Ezekiel's Hierarchical World: Wrestling with a Tiered Reality*, edited by Stephen L. Cook and Corrine L. Carvalho, 141-57.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 Sweeney, Marvin A. *Reading Ezeki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Publishing, 2013).
- Zimmerli, Walther.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Chapters 1-24*. Translated by Ronald E. Clement. Hermeneia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검색어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난  
에스겔의 아내  
에스겔의 유배 공동체

## Ezekiel's Trauma over the Prohibition of the Mourning Rites for His Wife

Inchol Yang Ph.D.  
Assitant Professor, Talmage Liberal Arts College  
Hannam Universi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Ezekiel's behavior just before the loss of his wife (Ezek 24:15-27) reflects the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exiled community after the fall of the Jerusalem Temple. Ezekiel and his exiled community suffered the trauma of invasion by the Neo-Babylonian Empire. In Ezekiel 24, Ezekiel's loss of his wife symbolizes the loss of the Jerusalem Temple. By his symbolic act, the prohibition of mourning just before the death of his wife, Ezekiel becomes the symbol for his exiled community. It means that Ezekiel extends his individual trauma to his exile community's collective trauma. By explaining the meaning of his individual trauma, Ezekiel makes the exile community recognize the nature of their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Furthermore, Ezekiel hopes that his exile community will become a new community recovered from their trauma. Rather than weeping for their destroyed city

Jerusalem, Ezekiel and his community start a new beginning during the exile while they wear turbans on their head and put their sandals on their feet. This behavior facilitates the recovery from the trauma for his exile community.

In order to demonstrate my argument, first of all, this study introduces the trauma theories of Cathy Caruth and Jeffrey Alexander in the cultural and literary studies. Second, this study introduces biblical scholars' psychoanalytic studies on Ezekiel. Third and Last, based on Alexander's collective trauma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Ezekiel's trauma after it analyzes the translation, the structure, and the background of Ezekiel 24:15-27. As a conclusion, the study discusses the contributions of the studies on Ezekiel's trauma to the Korean society.

## Keywords

Trauma

PTSD

Suffering

Ezekiel's wife

Ezekiel's exiled community

- 투고일: 2020년 3월 6일
- 심사일: 2020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

[www.kci.go.kr](http://www.kci.go.kr)